

계량적 방법을 통한 만주어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분포 연구

도정업**
정성훈***

『삼역총해』(三譯總解)에 나타난 부동사 어미
‘-me, -fi, -ci’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계량적 방법을 활용해서 『삼역총해』(三譯總解)에 나타난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사 어간과 이와 결합하는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특성과 경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만주어에 있는 총 19개의 어미 유형 중에서 부동사 어미는 8개이다. 이 중에서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빈도는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동사 어간과 부동사 어미가 결합하는 전체 빈도의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fi’의 경우, 결합하는 동사 어간이 이동성, 타동성이 높거나 인지의 의미를 보인다. 많은 만주어의 성취 동사/완성 동사는 ‘-fi’와의 결합하는 경향성이 큰데, 이것은 계기성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me’는 상태 동사와 결합하거나 이동성, 타동성이 낮은 동사나 감정 동사들과 결합하는 경향성이 크다. 이러한 양상은 ‘-fi’와 상반된다. 따라서 ‘-me’의 중심적인 기능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ci’는 결합한 동사가 인지 동사일 때 인지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ci’가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제어 만주어, 『삼역총해』(三譯總解), 말뭉치, 동사 어간, 부동사 어미, 분포, 빈도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330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머리말

본 연구는 계량적 방법을 활용하여 『삼역총해』에 나타난 만주어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분포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동사 어간과 이와 결합하는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특성과 경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역총해』는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소아론』(小兒論), 『팔세아』(八歲兒)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선시대 청학서이다. 조선시대의 사역원에서는 역관을 양성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면서 여러 교재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병자호란 이후에 만주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만주어를 담당하는 역관을 위한 읽기 교재인 『삼역총해』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삼역총해』의 초간본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영조 50년(1774)에 김진하 등이 초간본을 수정하여 편찬한 중간본이다. 『삼역총해』는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를 번역하였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으로, 만주어의 음을 한글로 전사하고 만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편찬자들은 1650년 청나라의 키충거(祁充格) 등이 만주어로 번역한 『만문삼국지』(滿文三國志, *Ilan gurun i bithe*) 중 10개의 장면을 선별하여 10권 10책으로 만주어 읽기 교재를 구성하였다. 『삼역총해』의 각 권에 대한 내용은 (1)과 같다.

(1) 『三譯總解』의 내용¹

- 〈권1〉, 봉의정에서 여포가 초선을 희롱하다
- 〈권2〉, 관우가 천 리 길을 홀로 가다
- 〈권3〉, 제갈량이 지모로 손권을 자극하다

1 연규동(2014), 「청학서: 선조들이 만난 만주어」, 『새국어생활』 24-1, p. 47.

- <권4>, 제갈량이 계책을 주유를 굴복시키다
- <권5>, 황개가 조조를 깨뜨릴 계책을 바치다
- <권6>, 감택이 거짓 항복서를 몰래 바치다
- <권7>, 방통이 연환계를 바치다
- <권8>, 조조가 창을 가로 들고 시를 읊다
- <권9>, 관우가 의리 때문에 조조를 놓아준다
- <권10>, 금강묘계로 조자룡이 주군을 구하다

본 연구에서 『삼역총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책의 저본이 순치본 『만문삼국지』이기 때문에 한어의 영향을 적게 받은 만주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만주어 교재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만주어에서 나타나는 격표지, 어미, 접사 등 대부분의 문법형태소를 수록하여 교육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문법형태소의 특징과 경향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²

본 연구에서 이용한 『삼역총해』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2 『滿文三國志』(*Manchu Gurun i bithe*)가 한어를 대역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滿文三國志』는 간행 시기로 보았을 때 청나라 초기의 만주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趙志忠(2000), 「從『清文啓蒙』看清代前期滿族人的雙語使用」, 『滿語研究』 1, p. 27에 따르면 만주어가 제1 언어였던 시기에서 중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네 단계로 구분된다. 즉 초기인 모어 사용 시기(후금 시기부터 강희 61년, 약 100년간), 전기인 이중 언어 사용 시기(옹정 원년부터 건륭 60년, 72년간), 중기인 혼합어 사용 시기(가경 원년부터 함풍 11년, 65년간), 후기인 중국어 사용 시기(동치 원년부터 선통 3년, 49년간)이다. 『滿文三國志』는 모어 사용 시기에 간행된 문헌이다. 또한, 早田輝洋(2015), 「滿洲語の多様な形態素-*ngge*の文法的位置付け」, 『言語研究』 148, pp. 57-58과 J. Do (2019), "Influence of Analogy on Innovation of an Interrogative Particle in Manchu," *Eoneohag* 85, p. 10에서도 *ningge*나 *nio*와 같은 새로운 어형들이 『金瓶梅』(1708)에서부터 생산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滿文三國志』는 한어의 영향을 적게 받은 만주어의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 규장각)본이며 간략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³

(2)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三譯總解』(약칭: 三總)

가. 金振夏(朝鮮) 編, 木版本, 刊地未詳, 英祖 50年(1774) 刊行

나. 10卷 10冊(22+1+1+2+2, 26, 26, 25, 25, 25, 23, 22, 22, 26)

다. 책 크기: 33.5×22cm, 匡郭: 四周單邊, 半葉匡郭 크기: 25×18.4cm,
6行, 字數不同, 版心: 上下花紋魚尾

라. 表題 및 版心題: 三譯總解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만주어 부동사 어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만주어의 부동사 어미를 분류한다. 3장에서는 『삼역총해』를 분석한 방법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에서는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들의 결합분포를 검토하고 이들 부동사 어미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한다. 5장은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관련 선행연구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동사 어미의 용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생산적으로 쓰인 ‘-me, -fi, -ci’ 등의 다양한 용법을 밝히고 있으며,

3 『三譯總解』는 현재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해서 일본 고마자와(駒澤)대학 아라야시문고(溜足文庫), 영국 대영도서관,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 등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동호(2015), 「한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과 과제」, 『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 108].

‘-mbime, -hAi, -nggAlA, -cibe, -tAlA’ 등과 같이 잘 쓰이지 않는 부동사 어미의 용법이 무엇인지까지도 고찰한 바 있다.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생산성이 높은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그것들의 다양한 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있으나, 부동사 어미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특성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다. 한국어의 경우 동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 일정한 분포와 경향성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최운호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 성과물(2011. 12. 수정판)’의 형태분석 말뭉치를 이용하여 한국어에 나타나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 결합 양상을 검토하였다. 한국어 용언 어간 4,005개와 용언 어간과 결합하는 어미 429개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 형태가 단 1개인 경우가 전체 사용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용언의 수는 312개(7.79%)로 나타났다. 8개의 결합 형태가 전체 사용 형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용언의 수는 3,507개(87.5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용언 어간이 결합하는 어미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⁵ 이러한 현상이 한국어와 같이 교착어에 속하는 만주어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삼역총해』에 나타난 만주어 동사 어간과 어미를 추출하여 그 결합 분포를 밝힌다. 특히 이 중에서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이에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부동사 어미 ‘-me, -fi, -ci’ 및 이들 부동사 어미와 결합하는 동

4 성백인(1958), 「만주어 동사활용어미 -ci, -cibe, -me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7.1; 성백인(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박은용(1969), 『滿洲語文語研究(一)』, 대구: 螢雪出版社;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校學術出版會; Liliya M. Gorelova (2002), *Manchu Grammar*, Leiden-Boston-Köln: Brill.

5 한국어의 명사와 격조사의 결합 양상 역시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 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최운호(2015), 「한국어 ‘용언 어간 + 어미’ 결합의 양상: 용언별 결합 어미 분포의 집중화 경향에 대하여」, 『언어학』 71, p. 20에서는 분석 대상 명사 중 절반 이상의 어휘는 14개의 격조사 결합형 중에서 단 3개의 결합형이 전체 격조사 결합형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사들의 특성과 경향성을 밝혀 본다.

2.2. 만주어 어미와 그 분류

만주어의 어미는 크게 정동사 어미, 분사 어미, 부동사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정동사 어미에는 비과거 정동사 어미 ‘-mbi’, 과거 비완망상 정동사 어미 ‘-mbihe’, 현재 완료 정동사 어미 ‘-HAbi’, 과거 완료 정동사 어미 ‘-HA bihe’, 원망법 어미 ‘-ki, -kini, -cina’, 염려법 어미 ‘-rahū’ 등이 있다.⁶ 분사 어미에는 ‘-rA’와 ‘-HA’가 있는데, 만주어에서 ‘-rA’와 ‘-HA’는 문장을 종결하는 종결형 어미로서의 기능,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형 어미로서의 기능, 문장의 논항으로 쓰이는 명사형 어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부동사 어미는 ‘-me, -mbime, -fi, -hAi, -nggAlA, -ci, -cibe, -tAlA’ 등이 있다. 이 중 ‘-me, -mbime, -fi, -hai, -nggala’는 주로 대등 접속문을 구성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me’와 ‘-mbime’는 동시에 일어나는 동작을 서술할 때 쓰이고, ‘-fi’는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서술할 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위주가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하는 것은 ‘-hai’에 의해서 표현되고, 선행절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후행절의 행위가 시작되는 것은 ‘-nggAlA’에 의해서 표현된다. ‘-ci’는 조건을 표현할 때 쓰이고, ‘-cibe’는 양보를 표현할 때 쓰인다고 알려져 있다. ‘-tAlA’는 한국어의 어미 ‘-게, -도록, -으라고’와 같이 결과 관계의 종속접속문을 구성한다. 각 부동사 어미의 전형적인 용법을 보여 주는 용례를 제시하면 (3)과

6 어미의 시상에 대한 분석은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특히, 근래에는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淸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과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만주어 시상법 체계를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가장 최근의 연구인 박상철(2017)의 분류를 따르기로 한다.

같다.⁷

(3) 만주어 부동사 어미의 전형적인 용법

가. *ucule-me* *maksi-me* *fulgiye-me* *fithe-me*
 sing-SIM,CVB dance-SIM,CVB blow-SIM,CVB pluck-SIM,CVB
 nure omica-hai (金 13:4b)

liquor drink_together-DUR,CVB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불며, (현악기를) 뜯으며, 술 마시면서

나. *lioi bu* *suju-me* *ji-mbime* *hendu-me*. (三 2:82b)
lioi bu run-SIM,CVB come-SIM,CVB speak-SIM,CVB

여포가 달려오며 말하기를,

다. *tereci* *casi* *gene-fi* *omo* *gebungge*
 after_that in_that_direction go-ANT,CVB omo named
hoton be *gai-fi*, *tere* *hoton* *de*
 castle ACC take-ANT,CVB that castle DAT
dedu-he, (老 命2:14a)

bed-PST,PTCP

그리고 나서 그 방향으로 가서 Omo라는 성을 정복하고 그 성에서 숙
 영했다.

라. *tere-ci* *tere* *cooha* *be* *gida-fi*,
 that-ABL that soldier ACC press-ANT,CVB

7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청나라 간행 만주어 문어 자료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명(약칭)	간행시기	소장처	卷/册
滿文老檔(老)	1778	中國第一歷史檔案館	180 책
三國志(三)	1722~1735	프랑스 국립도서관	24/8
金瓶梅(金)	1708	中國國家圖書館	40 책

olhon de *wa-hai* bira de
 dry_land DAT kill-DUR,CVB river DAT
 feku-mbu-fi gemu wa-fi, (老 命19:4b-5a)
 jump-CAUS-ANT,CVB all kill-ANT,CVB

그리고 나서 그 군사를 격파하고 물에서 죽이면서 강에 뛰어들게 하여
 모두 죽여서

마. gisun *waji-nggala*, geli emu niyalma beye-de
 word finish-PRE,CVB also one person body-DAT
 gulu etuku etu-hebi, (金 100:31b)
 pure clothing wear-PRS,PRF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몸에 민무늬 옷을 입었다.

바. kiyoo be *baha-ci*, mende
 bridge ACC get-COND,CVB 1PL,DAT(EXCL)
 medege alanju, (老 命19:10a)
 news come_to_report,IMP

다리를 획득하면, 우리에게 소식 알리러 오라.

사. tuttu *wa-cibe*, bi geli sain
 like_that kill-CONC,CVB 1SG,NOM also good
 banji-re be buye-me, wehe-i
 live-NPST,PTCP ACC love-SIM,CVB stone-GEN
 bithe ili-bu-me, (老 命6:9b)
 letter stand-CAUS-SIM,CVB

그렇게 죽이는데도 나는 또 사이 좋게 살기를 원하여 비석을 세우며

아. pu hecen goro o-ci, da-de
 pu castle far become-COND,CVB base-DAT
isi-tala saci, (老 命6:6a)
 reach-TERM,CVB chop,IMP

보와 성이 멀면, 본진에 이르도록 베라.

그런데 성백인은 만주어 부동사 어미 체계에서 다른 부동사 어미들보다 ‘-me’와 ‘-fi’가 가지는 기능이 다양하다고 하였다.⁸ 부동사 어미 중 ‘-me’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성백인(1968)은 (4)와 같이 ‘-me’의 용법을 8가지로 파악하였다.

(4) 성백인(1968)의 ‘-me’ 용법

가. 완전히 부사화된 용법

나. 주동작이 수행되는 방법이나 양태를 표시

다. b와 관련된 관용적 용법: ① ‘bi’ 또는 ‘bi-’ 혹은 ‘o-(ombi)’에 선행하여 상태를 묘사해 주는 용법과 ② ‘mute-, baha-, bahana-, etc-, jabdu-’나 또는 ‘deribu-, waji-’ 등에 선행하여 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용법과, ③ 도급 정도 때를 표시하는 용법이 포함

라. 주동작과 병행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을 표시하는 용법

마. 주동작이 수행되는 원인·이유나 판단의 기준을 표시하는 용법

바. 주동작이 수행되는 목적이나 의도를 표시하는 용법

사. 인용문이 뒤따를 것을 예견케 하는 인용 부동사적인 용법

아. 체언을 꾸며 주는 형용사적 용법

본 연구에서 파악한 바로도 부동사 어미 ‘-me’는 동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계기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양보, 인과, 목적, 인지의 의미도 보이며, 인용 부동사적인 용법도 보인다. 또한 부동사 어미 ‘-fi’ 역시 계기성과 동시성을 나타낼 수 있고, 양보, 인과, 첨의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부동사 어미 ‘-me’와 ‘-fi’는 서로 다른 용법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계

8 성백인(1968), p. 91.

기·양보·인과'라는 공통된 용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시와 계기는 '-me'와 '-fi'의 전형적인 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me'가 계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fi'가 동시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점은 두 부동사 어미의 용법에서 전형적인 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동사 어미의 기능에서 서로 변별될 만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성백인은 부동사 어미 '-ci'도 3가지 용법을 지닌다고 하였다.⁹ '조건'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용법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여도', '~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 이미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일어난 사실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하니', '~하느라니까' 따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성백인(1958)에서 제시한 '-ci'의 용법을 요약하면 '조건·양보·인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최동권은 이 용법에 더하여 '-ci'를 반복하여 쓰면 '선택'의 의미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¹⁰ 이렇듯 '-ci'가 보이는 다양한 용법은 '-ci'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의미와 기능의 차이를 동사 어간과 부동사 어미의 결합 양상을 통해 밝혀 보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3. 『삼역총해』에 대한 자료 추출과 분석

3.1. 자료 추출 과정

본 연구에서는 만주어 동사 어간과 이와 결합하는 부동사 어미가

9 성백인(1958), pp. 691-698; 성백인(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에 재수록.

10 최동권(2013), 「만주어 접속문 연구」, 『민족문화연구』 58, p. 614.

2-gram으로 이루어진 구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삼역총해』에 나타난 ‘동사 어간 + 어미’ 구성의 2-gram을 추출하려고 하였다.¹¹ 2-gram을 추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삼역총해』를 로마자로 전사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어휘 형태와 띄어쓰기 단위로 세그먼트(segment)하였다. 이후 텍스트에 나타난 구두점이나 특수문자를 제거하는 정제(cleaning) 작업을 수행하였고, 『삼역총해』에 나타난 전체 어휘 항목을 추출하였다.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어휘 항목의 유형(type)과 빈도(token)는 다음과 같다. 총 유형은 총 2,497개였으며, 총 빈도는 1만 6,299개였다.

그러나 추출한 어휘 항목의 유형과 빈도를 검토한 결과, ‘tung_coo_tai(銅雀臺)’ 등과 같은 고유명사는 원문에 ‘tung(銅)’, ‘coo(雀)’, ‘tai(臺)’로 띄어 적혀 있기 때문에 어휘 항목이 3개의 유형으로 추출되는 오류가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고유명사를, 한글로 전사된 부분을 대조하여 모두 찾아내어 하나의 명사로 통합하는 별도의 수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만주어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격표지, 어미, 접사 등은 따로 추출되지 않고 선행하는 명사나 동사 어간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추출되었다. 교착어의 성격을 지닌 한국어를 분석할 때는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 등을 서로 다른 어휘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고, 동사 어간 ‘먹-’에 어미 ‘-다, -고, -어서, -으니, …’ 등이 결합한 형태로 분석하기 때문에, 만주어를 분석할 때에도 ‘동사 어간 + 어미’ 형태를 각각의 형태소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즉 [표 1]에서 빈도순위 4위인 ‘hendume’의 경우에,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hendu-’와 ‘-me’로 분석을 하는

11 n-gram은 n개의 단어(형태소)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성을 말하며, n개의 수에 따라 1-gram, 2-gram, 3-gram, 4-gram 등으로 나뉜다. n-gram 역시 유형의 빈도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이나, 일부나마 단어(형태소)의 순서를 고려하여 단어(형태소)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표 1]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어휘 항목과 빈도

빈도순위	어휘 항목	빈도	빈도순위	어휘 항목	빈도
1	be	887
2	de	555	2488	yo	1
3	i	480	2489	yohindarakū	1
4	hendume	404	2490	yohoron	1
5	tsootsoo	190	2491	yokcin	1
6	bi	183	2492	yongkiyanakū	1
7	niyalma	173	2493	yowen	1
8	seme	149	2494	yung	1
9	ni	143	2495	yuyume	1
10	cooha	129	2496	zang	1
...	2497	zun	1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아직 만주어 격표지·어미·접사 등을 구분시켜 주는 ‘만주어 형태소 분석기’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역총해』에서 추출한 어휘 항목에 대하여 격표지·어미·접사 등의 단위로 재추출하기 위해서 추출된 어휘 항목 2,497개의 유형 가운데 격표지·어미·접사 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어휘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선별된 어휘 항목에 대해 격표지·어미·접사 등을 분리하는 태깅(tagging)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전체 『삼역총해』 자료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삼역총해』에 나타난 어휘 항목 가운데 ‘tung_coo_tai(銅雀臺)’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하나의 단어로 결합시키고, 격표지·어미·접사 등을 선행명사나 선행하는 동사 어간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에 다시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유형과 빈도를 추출하였다.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총 유형은 1,471개였으며, 총 빈도는 2만 1,014개였다. [표 2]는 일종의 1-gram 자료인데, 이 연구의 목적인 부동사 어미와 이에 선행하는 동사 어간과의 결합분포를 밝히기 위해서 『삼

[표 2]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유형과 빈도

빈도순위	형태소	빈도	빈도순위	형태소	빈도
1	-me	1,149
2	-fi	911	1462	yo_jin	1
3	be	892	1463	yohinda-	1
4	de	712	1464	yohoron	1
5	i	675	1465	yokcin	1
6	hendu	428	1466	yongkiyanakū	1
7	-mbi	341	1467	yung_tsy	1
8	-bu	333	1468	yuwan_ing	1
9	-ha	312	1469	yuwan_jiyan	1
10	-re	311	1470	yuyu	1
...	1471	zang_jioi	1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전체 2-gram 데이터를 추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1-gram을 다시 문장 단위로 분리한 후 문장 단위로 2-gram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2-gram의 총 유형은 8,683개였으며, 빈도는 총 1만 9,286개였다. 가장 빈도가 높은 2-gram은 ‘hendu- -me’였으며, 총 404번 나타났다. 이 외에도 ‘bu- -fi, o- -fi, cooha i, -me bi, -re -ngge, -fi hendu-’ 등의 순으로 고빈도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삼역총해』에 나타난 전체 2-gram 자료에서 다시 ‘동사 어간 + 어미’의 결합만을 추출하였다. 이때 [표 3]에서 빈도순위 2위인 ‘-bu- -fi’처럼 어미에 선행하는 형태소가 동사 어간이 아닌 접사인 경우에는, 접사에 선행하는 동사 어간을 확인하고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어미 ‘-me’ 앞에 접사 ‘-bu-’가 나올 경우, 접사 ‘-bu-’에 선행하는 동사 어간 ‘afa-’와 결합한 ‘afabu-’의 형태가 어미 ‘-me’와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추출하였다. 또한 모음조화 현상으로 동사 어간의 형태에 따라 어미의 이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모두 하나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표 3]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2-gram의 유형과 빈도

빈도순위	2-grams		빈도	빈도순위	2-grams		빈도
1	hendu-	-me	404
2	-bu-	-fi	88	8494	yūn_cang	ineku	1
3	o-	-fi	63	8495	yūn_cang	isinji-	1
4	cooha	i	62	8496	yūn_cang	sa	1
5	-me	bi	58	8497	yūn_cang	sunja	1
6	-re	-ngge	56	8498	yūn_cang	tere	1
7	-fi	hendu	54	8499	yūn_cang	tondo	1
8	-re	de	50	8500	yūn_cang	wa-	1
9	boo	de	45	8501	yūn_cang	wesihun	1
10	-me	hendu	45	8502	yūn_cang	yala	1
...	8503	zang_jioi	dasa	1

어미 ‘-ha, -he, -ho, -ka, -ke, -ko’는 어미 ‘-HA’의 형태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3.2. 자료 분석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유형과 빈도는 [표 4]와 같다.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유형은 총 1,423개가 추출되었으며, 빈도는 총 4,539개였다. 역시 ‘hendu-’와 ‘-me’의 결합이 404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o-’와 ‘-fi’, ‘tuwa-’와 ‘-ci’, ‘bi-’와 ‘-he’ 등의 순으로 빈도순위를 보였다.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유형을 다시 각각 동사 어간과 어미로 각각 구분하여 이들의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 동사 어간의 유형은 총 589개, 빈도는 총 4,539개였으며, ‘hendu-, o-, se-, gene-, bi-’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표 4]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동사+어미' 결합 유형과 빈도

빈도순위	2-grams		빈도	빈도순위	2-grams		빈도
1	hendu-	-me	404
2	o-	-fi	63	1414	yamula-	-me	1
3	tuwa-	-ci	44	1415	yangsala-	-me	1
4	bi-	-HA	43	1416	yarkiya-	-me	1
5	o-	-mbi	41	1417	yebele-	-rakū	1
6	gai-	-fi	38	1418	yende-	-fi	1
7	o-	-ci	38	1419	yendebu-	-HA	1
8	ji-	-HA	37	1420	yerte-	-rA	1
9	se-	-fi	37	1421	yertebu-	-HA	1
10	o-	-HA	36	1422	yohinda-	-rakū	1
...	1423	yuyu-	-me	1

[표 5] 『삼역총해』의 '동사+어미' 결합에 나타난 동사 어간의 유형과 빈도

빈도순위	동사 어간	빈도	빈도순위	동사 어간	빈도
1	hendu-	426
2	o-	188	580	yamula-	1
3	se-	146	581	yangsala-	1
4	gene-	118	582	yarkiya-	1
5	bi-	93	583	yebele-	1
6	ji-	89	584	yende-	1
7	tuwa-	86	585	yendebu-	1
8	daha-	76	586	yerte-	1
9	gai-	68	587	yertebu-	1
10	baha-	63	588	yohinda-	1
...	589	yuyu-	1

[표 6] 『삼역총해』의 ‘동사+어미’ 결합에 나타난 동사 어간의 유형과 빈도

빈도순위	어미	빈도	빈도순위	어미	빈도
1	-me	1,149	11	-cibe	20
2	-fi	911	12	-hAi	20
3	-HA	728	13	-kini	12
4	-rA	537	14	-mbihe	12
5	-mbi	341	15	-rahū	10
6	-ci	289	16	-tAlA	6
7	-rakū	238	17	-mbime	4
8	-HAbi	127	18	-nggAlA	3
9	-ki	90	19	-cina	2
10	-Hakū	40			

어미의 유형은 총 19개였으며, 총 빈도는 역시 4,539개였다. 어미 ‘-me’가 1,149번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fi, -HA, -rA, -mbi’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cina, -nggAlA, -mbime, -tAlA’는 빈도가 10 이하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동사 어간과 부동사 어미의 결합 양상과 그 특징

4.1.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결합 분포

[표 7]은 『삼역총해』에 나타나는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분포를 보여주는 결합 빈도표이다. 각 동사가 19개의 어미 가운데 어느 어미와 결합을 많이 하였고, 어느 어미와 결합을 덜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동사에 따라서 자주 결합하는 어미의 유형과 결합 분포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합 현상을 어떻게 분석해 볼 것인가?

[표 7] '심역총해'에 나타나는 '동사 어간+어미'의 결합 분포

	<i>cī</i>	<i>cibe</i>	<i>cina</i>	<i>fī</i>	HA	HABi	hAi	HAKū	kī	kini	mbi	mbihe	mbime	<i>mē</i>	nggAIA	rA	rahū	rakū	tAIA
aca-	2	0	0	6	10	2	0	0	1	0	12	2	0	2	0	3	0	8	0
acabu-	0	0	0	0	1	0	0	0	0	0	0	0	0	4	0	4	0	0	0
acana-	1	0	0	2	1	0	0	0	0	0	0	0	0	0	0	1	0	1	0
acanjī-	0	0	0	1	0	0	1	0	0	0	0	0	0	1	0	1	0	0	0
acinggiya-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ada-	0	0	0	2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afa-	0	1	0	0	4	0	0	0	1	0	2	0	0	5	0	14	0	2	0
afabu-	0	0	0	0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ag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0	0	0
aifu-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aina-	0	0	0	0	8	0	2	0	0	0	5	0	0	0	0	10	0	0	0
ainambaha-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isila-	2	0	0	0	0	0	0	0	0	0	2	0	0	1	0	2	0	0	0
aisilabu-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0	0
ak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										...									
yabu-	3	0	0	3	3	0	1	0	0	0	6	0	0	4	0	6	0	2	0
yafa-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yalu-	0	0	0	9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yalubu-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yamji-	0	0	0	0	3	0	0	0	0	0	0	0	0	2	0	0	0	0	0
yamula-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yangsala-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yarkiya-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yebel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yende-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yendebu-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yert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yertebu-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yohind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yuyu-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위의 19개 어미 중에서 만주어의 부동사 어미는 8개밖에 되지 않지만, 8개의 부동사 어미 중에서도 ‘-me, -fi, -ci’가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빈도는 전체의 약 98%에 이른다.¹² 결국 만주어에서 동사 어간이 결합하는 부동사 어미는 매우 한정적이며 이 3개의 부동사 어미는 다양한 용법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me’와 ‘-fi’는 용법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부동사 어미들이 동사 어간과 결합할 때 특정 동사 어간들과 결합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동사 어간과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결합 분포는 [표 8]과 같다. 어미 -ci는 ‘tuwa-, o-, bi-, gene-’ 등 총 88개의 동사 어간과 결합하였으며, 빈도 10 이상의 동사 어간은 총 5개였다. 어미 fi는 ‘o-, gai-, se-, gene-’ 등 총 211개의 동사 어간과 결합하였으며, 빈도 10 이상의 동사 어간은 총 23개였다. 어미 ‘-me’는 ‘hendu-, daha-, ali-, urgunje-’ 등 총 265개의 동사 어간과 결합하였으며, 빈도 10 이상의 동사 어간은 17개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경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총 결합 빈도가 15 이상인 동사 어간만을 제시한다. 결합 빈도 15 이상의 동사 어간과 결합한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결합한 동사 어간의 유형은 ‘ali-, ara-, baha-, banji-, bedere-, bi-, bu-, daha-, donji-, dosi-, fonji-, funce-, gai-, gene-, gūni-, hendu-, holto-, hūla-, ili-, inje-, jafa-, ji-, nene-, o-, sa-, se-, sinda-, te-, tucibu-, tuwa-, urgunje-’ 등 총 31개였으며, ‘hendu-, o-, tuwa-, gene-’ 등의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빈도가 높았다. 특히 동사 어간 ‘hendu-’는 그 빈도가 411로 매우 높았으며, 그중 ‘-me’ 결합한 경우가 404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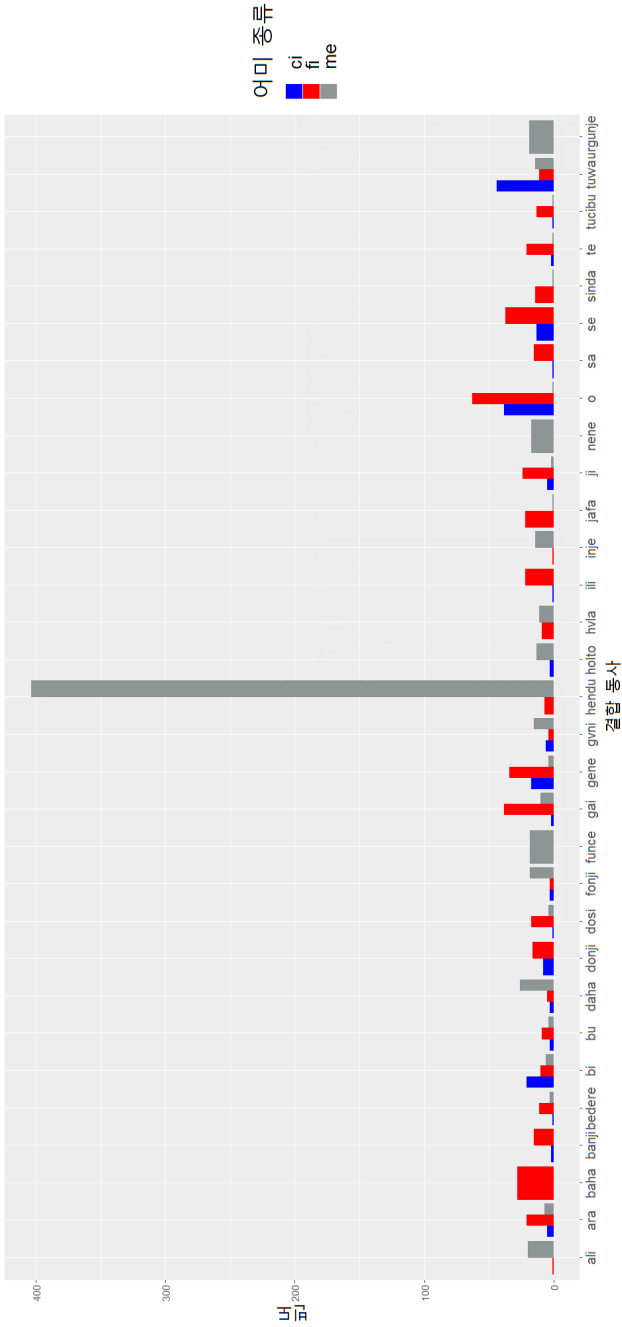
12 [표 7] 이후로 제시되는 표는 부동사 어미를 기준으로 분포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마자 순서에 따라 부동사 어미를 정렬하였다.

[표 8] 『삼역총해』의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 빈도

빈도순위	-ci	빈도	빈도순위	-fi	빈도	빈도순위	-me	빈도
1	tuwa-	44	1	o-	63	1	hendu-	404
2	o-	38	2	gai-	38	2	daha-	26
3	bi-	21	3	se-	37	3	ali-	20
4	gene-	17	4	gene-	34	4	urgunje-	19
5	se-	13	5	baha-	28	5	fonji-	18
6	bodo-	8	6	ji-	24	6	funce-	18
7	donji-	8	7	ili-	22	7	nene-	17
8	gūni-	6	8	jafa-	22	8	gūni-	15
9	ara-	5	9	ara-	21	9	tuwa-	14
10	gisure-	5	10	te-	21	10	inje-	14
...
79	sinahala-	1	202	unggi-	1	256	ula-	1
80	tokdobu-	1	203	unu-	1	257	ulebu-	1
81	tuci-	1	204	urhu-	1	258	weile-	1
82	tucibu-	1	205	usihiya-	1	259	weilebu-	1
83	tukiye-	1	206	uša-	1	260	šumile-	1
84	tuwabu-	1	207	wacihiya-	1	261	šuru-	1
85	tuwakiya-	1	208	wenje-	1	262	yamula-	1
86	ucule-	1	209	šele-	1	263	yangsala-	1
87	uka-	1	210	yalubu-	1	264	yarkiya-	1
88	wa-	1	211	yende-	1	265	yuyu-	1

4.2. 부동사 어미와 결합하는 동사

[표 9]는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결합과 그 비율을 나타내는 표인데, 부동사 어미의 빈도가 15 이상인 결합만을 추출하였다.



[그림 1] 동사 어간과 결합한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분포

[표 9] 부동사 어미 '-me, -fi,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분포와 경향성

	-ci	-fi	-me	전체 빈도	-ci 비율	-fi 비율	-me 비율
ali-(받다)	0	1	20	21	0	0.048	0.952
ara-(쓰다, 만들다)	5	21	7	33	0.152	0.636	0.212
baha-(획득하다)	0	28	0	28	0	1.000	0
banji-(태어나다, 살다, 형성하다)	2	15	0	17	0.118	0.882	0
bedere-(물러나다)	1	11	3	15	0.067	0.733	0.200
bi-(이다, 있다)	21	10	6	37	0.568	0.270	0.162
bu-(주다)	3	9	4	16	0.187	0.563	0.250
daha-(따르다, 행복하다)	3	5	26	34	0.088	0.147	0.765
donji-(듣다)	8	16	0	24	0.333	0.667	0
dosi-(들어가다)	1	17	4	22	0.045	0.773	0.182
fonji-(묻다)	3	3	18	24	0.125	0.125	0.750
funce-(초과하다)	0	0	18	18	0	0	1.000
gai-(취하다, 빼앗다)	2	38	10	50	0.040	0.760	0.200
gene-(가다)	17	34	4	55	0.309	0.618	0.073
gūni-(생각하다)	6	4	15	25	0.240	0.160	0.600
hendu-(말하다)	0	7	404	411	0	0.017	0.983
holto-(속이다)	3	0	13	16	0.188	0	0.812
hūla-(외치다, 읽다)	0	9	11	20	0	0.450	0.550
ili-(서다)	1	22	0	23	0.043	0.957	0
inje-(웃다)	0	1	14	15	0	0.067	0.933
jafa-(잡다)	0	22	1	23	0	0.957	0.043
ji-(오다)	5	24	2	31	0.161	0.774	0.065
nene-(먼저이다)	0	0	17	17	0	0	1.000
o-(되다)	38	63	1	102	0.372	0.618	0.010
sa-(알다, 보다)	1	15	0	16	0.063	0.937	0
se-(말하다)	13	37	0	50	0.260	0.740	0
sinda-(두다, 놓다)	0	14	1	15	0	0.933	0.067
te-(앉다)	2	21	1	24	0.083	0.875	0.042
tucibu-(내다)	1	13	1	15	0.067	0.866	0.067
tuwa-(보다)	44	11	14	69	0.638	0.159	0.203
urgunje-(기뻐하다)	0	0	19	19	0	0	1.000

[표 9]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f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이 주로 이동을 의미하는 동작 동사나 완성 동사 중 타동성이 높은 동사, 성취 동사 중에서 절정적 성취 또는 인지와 관련된 동사라는 점이다.¹³ 반면에 ‘-me’와 결합하는 동사는 상태 동사,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 동작 동사, 완성 동사 중 타동성이 낮은 동사, 성취 동사 중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이다. ‘-ci’의 경우 ‘-fi’와 ‘-me’보다 빈도 수가 적은 편이어서 15개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동사에 포함되는 동사 어간이 5개이다. 이 중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동사 5개 중 2개는 인지 동사인 ‘tuwa-(보다)’와 ‘donji-(듣다)’이고, 2개는 명사나 형용사가 선행할 때 나타나는 ‘bi-(이다, 있다)’와 ‘o-(되다)’이며, 나머지 1개는 동작 동사인 ‘gene-(가다)’이다.

우선, 용법상으로 겹치는 면이 많은 ‘-fi’와 ‘-me’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서 ‘-ci’의 특성을 검토한다. ‘-fi’와 ‘-me’의 특성은 상태 동사, 동작 동사, 완성 동사, 성취 동사 순으로 검토한다.

상태 동사는 ‘-fi’와 결합한 용례는 ‘bi-(이다, 있다)’에서만 나타나고, -me와 결합한 용례는 ‘bi-’를 비롯하여 ‘funce-(초과하다)’와 ‘nene-(먼저이다)’에서 나타난다. 이 중 ‘funce-’와 ‘nene-’는 모든 용례가 ‘-me’와만 결합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funce-’는 18개의 용례가 모두 ‘-me’와 결합하였고, ‘nene-’는 17개의 용례가 모두 ‘-me’와만 결합하였다.

(4) 상태 동사 ‘funce-’와 ‘nene-’가 결합한 ‘-me’의 용례

13 본 연구에서 동사를 분류하는 용어는 루시언 브라운·연재훈(2010),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사 시제상 습득 양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진행형 “-고 있다”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1), pp. 154-155를 따른다. 이 연구는 한국어의 동사에 관하여 다루었으나 만주어 동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동사 분류는 상태 동사(state verbs: 예쁘다, 높다, 있다, 없다 등), 동작 동사(activity verbs: 달리다, 뛰다, 웃다, 울다 등), 완성 동사(accomplishment verbs: 찾다, 편지를 쓰다, 죽이다, 입히다 등), 성취 동사(achievement verbs)이다. 성취 동사는 절정적(climatic) 성취와 기동적(inchoative) 성취로 나누었는데, 절정적 성취는 ‘죽다, 끝나다, 켜다, 시작하다’ 등이 있고, 기동적 성취는 ‘알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억하다’ 등 감정·인지 동사를 가리킨다.

가. damu ilan tanggū funce-me niyalma bi (三總 9:5b)
 only three hundred be_left_over-SIM.CVB person be
 다만 300명 넘게(직역: 넘어서) 사람이 있다.

나. jangliyoo si nene-me gene-fi
 jangliyoo 2SG.NOM be_first-SIM.CVB go-ANT.CVB
 ili-bu (三總 2:6b)
 stop-CAUS.IMP
 장료, 너는 먼저(직역: 앞서서) 가서 머무르라.

‘bi-’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현상은 ‘-fi’와 결합하는 ‘bi-’는 ‘있다’라는 의미로만 쓰였고, ‘-me’와 결합하는 ‘bi-’는 ‘이다’라는 의미로만 쓰였다. 최동권은 ‘bi-’와 ‘-me’가 결합한 ‘bime’를 접속사로 보았는데, 이러한 주장은 ‘-me’와 결합하는 ‘bi-’가 ‘이다’라는 의미로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⁴

(5) ‘bi-’와 결합한 ‘-fi’와 ‘-me’의 용례

가. sun cuwan hendu-me si sin yei de bi-fi
 sun cuwan speak-SIM.CVB 2SG.NOM sin yei DAT be-ANT.CVB
 lio hiowande de aisila-mbi kai (三總 3:5a)
 lio hiowande DAT help-NPST PTL
 손권이 말하기를, “너는 신야에 있어서 유현덕을 돕는 것이다.”

나. kungming hendu-me tiyan heng ci gurun i
 kungming speak-SIM.CVB tiyan heng ci country GEN
 baturu saisa bi-me hono jurgan be tuwakiya-me
 hero hero be-SIM.CVB still loyalty ACC guard-SIM.CVB

14 최동권(2013), p. 611.

ejen be giru-bu-hakū bi
 master ACC be_ashamed-CAUS-PST.PTCP.NEG be
 공명이 말하기를, “전황은 제나라의 영웅이면서 여전히 충성을 지
 키며 수장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동작 동사의 경우를 검토한다. ‘bedere-’(몰려나다), gene-(가다), ji-(오다)’와 같은 이동의 의미를 지닌 동작 동사는 ‘-fi’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bedere-’는 15개 중 11개(73.3%), ‘gene-’는 55개 중 34개(61.8%), ‘ji-’는 31개 중 24개(77.4%)가 ‘-fi’와 결합하였다. 반면 ‘-me’는 이동의 의미가 없는 동작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말하다류 동사는 ‘-me’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다. ‘fonji-(묻다), hendu-(말하다), hūla-(외치다, 읽다)’가 그러한 경향을 잘 보여 준다. 특히, ‘hendu-’는 411개의 용례 중 무려 404개 용례가 ‘-me’와 결합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말하다류 동사인 ‘se-(말하다)’는 ‘-fi’와 결합하는 비율이 74%이고 ‘-me’와는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도정업·정한별(2017)에서 밝힌 바와 같이 ‘se-’와 ‘-me’가 결합한 ‘seme’ 형태는 보문소화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문법형태소로 보아야 한다. 만약 ‘seme’를 포함하여 본다면 ‘seme’는 158개의 용례가 발견되므로 ‘-me’가 ‘se-’와 결합한 비율은 75.9%이다. 결국 ‘se-’는 말하다류 동사가 ‘-me’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의 반례가 될 수 없다. 말하다류 동사 외에도 이동을 의미하지 않는 동작 동사인 ‘inje-(웃다)’도 ‘-me’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15개의 용례 중 14개의 용례가 ‘-me’와 결합하였다.

(6) 동작 동사와 결합한 ‘-fi’의 용례

가. julergi cooha i niyalma bedere-fi hendu-me (三總 9:2b)
 front army GEN person withdraw-ANT.CVB speak-SIM.CVB
 앞선 군대의 사람이 몰려나서 말하기를,

나. lu su jeo ioi jakade ji-fi tuwa-me
 lu su jeo ioi.GEN close_to come-ANT.CVB look-SIM.CVB
 hendu-me (三總 5:7a-7b)
 speak-SIM.CVB
 노숙이 주유의 곁에 와서 보고 말하기를,

(7) 동작 동사와 결합한 ‘-me’의 용례

가. wang yun ebše-me ili-bu-fi hendu-me uba
 wang yun hurry-SIM.CVB stop-CAUS-ANT.CVB speak-SIM.CVB here
 gisure-re ba waka (三總 1:1a)
 speak-NPST.PTCP place be_not
 왕윤이 급히 멈추게 해서 말하기를, “여기는 말할 곳이 아니다.”

나. kungming inje-me hendu-me dzy jing mimbe
 kungming laugh-SIM.CVB speak-SIM.CVB dzy jing 1SG.ACC
 ainu eitere-mbi (三總 5:19b)
 why deceive-NPST
 공명이 웃으며 말하기를, “자경은 나를 왜 속이는가.”

완성 동사는 특정한 목표점 또는 종료점이 있는 진행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완성적(telic) 동사이다.¹⁵ 완성 동사는 대체로 타동성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타동성은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주어인 행위주로부터 목적어인 대상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타동문은 적어도 주어와 목적어의 2개 성분을 요구한다.¹⁶

호퍼(P. J. Hopper)와 톰슨(S. A. Thompson)은 타동성(transitivity)의 전형성

15 루시언 브라운·연재훈(2010), p. 155.

16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p. 107.

을 파악하여 타동성을 결정하는 10가지 변수를 제시하였다.¹⁷ 10가지 변수를 나열하면, A. 사건 참여자(participants), B. 운동(kinesis), C. 상(aspect), D. 시간적 특정성(punctuality), E. 의도성(volitionality), F. 긍정(affirmative), G. 서법(mode), H. 행위성(agency), I. 목적어의 영향 입음성(affectedness of O), J. 목적어의 개별성(individuation of O)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10가지 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목적어의 개별성(individuation of O)를 제외하면 동사 어간에 존재하는 타동성 변수는 대상 구문에 타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삼역총해』에서 ‘-fi’와 함께 쓰인 완성 동사는 ‘ara-(쓰다, 만들다), baha-(획득하다, 얻다), banji-(형성하다)¹⁸, bu-(주다), gai-(취하다, 빼앗다), jafa-(잡다), sinda-(두다, 놓다), tucibu-(내다)’이다. 특히 ‘baha-’는 28개의 용례가 모두 ‘-fi’와 결합하였다. 또한 ‘banji-, jafa-, sinda- tucibu-’도 85% 이상의 용례가 ‘-fi’와 결합하였다. 이 동사들은 Hopper and Thompson(1980)에서 제시한 기준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킨다.

(8) 완성 동사와 결합한 ‘-fi’의 용례

가. jiyangjiyūn jalan be elbe-he amba gung
 general world ACC cover-PST.PTCP big effect
baha-fi (三總 9:20a)
 obtain-ANT.CVB
 장군이 세상을 덮은 큰 공을 획득해서

17 P. J. Hopper and S.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p. 252.

18 banji-의 전형적인 의미는 ‘태어나다, 살다’이기 때문에 성취 동사나 동작 동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banji-는 자타양용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도정업(2018), 「만주어 격 표지 be의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67). 『三譯總解』에는 타동사로서의 용법이 더 빈번히 나타난다. jili banji-(화를 내다)의 형태가 총 15개 용례 중 14개로 나타난다. 나머지 1개는 ‘태어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나. kung sio loho *jafa-fi* furdan ci tuci-fi (三總 2:24a)
 kung sio sword grasp-ANT,CVB gateway ABL come_out-ANT,CVB
 공수가 칼을 잡고 관문에서 나가서

‘-me’와 함께 쓰인 완성 동사는 ‘ali-(받다), daha-(따르다, 항복하다), holto-(속이다)’이다. 이 동사들은 전체적으로 의도성, 행위성, 목적어의 영향입음성 등이 낮은 동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9) 완성 동사와 결합한 ‘-me’의 용례

- 가. lu su gisun be *ali-me* gai-fi (三總 4:1b)
 lu su word ACC receive-SIM,CVB take-ANT,CVB
 노숙이 말을 받아 가지고

- 나. ere juwe nofi gemu *holto-me* *daha-me*
 this two person all deceive-SIM,CVB surrender-SIM,CVB
 ji-hebi (三總 5:7b)
 come-PRS,PRF

이 두 사람은 모두 속이며 항복하러 왔다.

성취 동사는 절정적 성취와 기동적 성취로 나뉘는데 절정적 성취 동사는 모두 ‘-fi’와 결합한다. ‘dosi-(들어가다), ili-(서다), o-(되다), te-(앉다)’가 그 동사들이다. 이 동사들 중 ‘o-’는 102개 용례 중 63개가 ‘-fi’와 결합하고, 단 1개의 용례만 ‘-me’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o-’의 본동사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fi’와 ‘-me’ 중에 ‘-fi’를 ‘o-’와 결합시켰다고 볼 수 있다. 기동적 성취는 감정·인지 동사의 주된 의미인데 만주어에서는 감정 동사와 인지 동사가 각각 다른 부동사 어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donji-(듣다), sa-(알다, 보다)’와 같은 인지 동사는 ‘-fi’와 ‘-me’ 중에 ‘-fi’와만 결합한다. 반면에 ‘güni-(생각하다),

urgunje-(기뻐하다)'와 같은 감정 동사는 '-me'와 결합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urgunje-'의 경우 모든 용례가 '-me'와만 결합한다.

(11) 절정적 성취 동사와 결합한 '-fi'의 용례

가. g'an ning *ili-fi* loho goci-fi hendu-me (三總 6:23a)

g'an ning stand-ANT,CVB sword draw-ANT,CVB speak-SIM,CVB

감녕이 일어서고 칼을 빼서 말하기를,

나. te gurun facuhūn *o-fi* (三總 2:25b)

now country confusion become-ANT,CVB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12) 인지 동사(기동적 성취 동사)와 결합한 '-fi'의 용례

가. guwan gung tere gisun be *donji-fi* (三總 2:19a)

guwan gung that word ACC listen-ANT,CVB

관공이 그 말을 듣고

나. sargan lioi bu i jobo-ro cira be
female lioi bu GEN worry-NPST,PTCP complexion ACC
sa-fi fonji-me (三總 1:7b)

see-ANT,CVB ask-SIM,CVB

여인이 여포의 근심하는 안색을 보고서 묻기를

(13) 감정 동사(기동적 성취 동사)와 결합한 '-me'의 용례

가. tsootsoo hendu-me bi g'u fung siyo be *gūni-me*
tsootsoo speak-SIM,CVB 1SG,NOM g'u fung siyo ACC think-SIM,CVB

songgo-mbi kai (三總 9:16a)

cry-NPST PTL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곽봉효를 생각하며 운다.”

나. sun cuwan ambula urgunje-me hendu-me (三總 3:21b)

sun cuwan very be_glad-SIM.CVB speak-SIM.CVB

손권이 매우 기뻐하며 말하기를,

종합하여 보면 ‘-fi’는 이동성, 타동성이 높거나 인지 동사들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에 ‘-me’는 상태 동사와 결합하거나 이동성, 타동성이 낮거나 감정 동사들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루시언 브라운과 연재훈은 언어 학습자들이 과거나 완료 표지를 성취동사 또는 완성동사에 먼저 사용한다고 하였다.¹⁹ 만주어에서는 성취동사와 완성동사 중 많은 수가 ‘-fi’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가 나타내는 진행적인 의미가 계기성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me’가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양상은 ‘-fi’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me’의 중심적인 기능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i’와 ‘-me’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ci’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우선 인지 동사인 ‘tuwa-(보다)’(44개)와 ‘donji-(듣다)’(8개)에 붙은 ‘-ci’는 모두 인지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였다. 다음으로 ‘bi-(이다, 있다)’를 보면 ‘-fi’와 결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bi-’는 모두 ‘있다’라는 의미로만 쓰인다. ‘bi-’와 결합한 ‘-ci’는 조건의 용법으로 15개, 인지의 용법으로 5개, 양보의 용법으로 1개가 실현되었다. ‘o-(되다)’의 경우, ‘-ci’는 부동사 어미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바로 어미와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ci’에 선행하는 명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o-’가 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o-’와 결합하는 ‘-ci’의 용례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o-’와 결합한 ‘-ci’는 조건의 용법으로 35개, 인지의 용법으로 3개가 실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동동사인 ‘gene-(가다)’의 용례이다. ‘gene-’와 결합한 ‘-ci’는 17개 용례 중 3개만 인지의 용법으로 쓰였고, 13개는 조건의 용법으로 쓰이고, 1개는

19 루시언 브라운·연재훈(2010), p. 155.

선택의 용법으로 쓰였다. 예문 (14)와 (15)를 보면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한다.

(14) 인지 동사와 결합한 ‘-ci’의 용례

가. kungming *tuwa-ci* towa se-re emu
kungming look-COND,CVB fire say-NPST,PTCP one
hergen (三總 5:1a)
letter

공명이 보니, 화(火)라는 한 글자이다.

나. bi *donji-ci* sinde emu sargan
1SG,NOM listen-COND,CVB 2SG,DAT one female
jui bi (三總 1:3a)
child be

내가 들으니, 너에게 딸 한 명이 있다.

(15) 인지 동사가 아닌 동사와 결합한 ‘-ci’의 용례

가. aisin gu-i gese gisun *bi-ci* ainu too lu
gold jade-GEN like word be-COND,CVB why too lu
jiyangjiyün de gisure-rakū (三總 3:1b-2a)
general DAT speak-NPST,PTCP,NEG

금옥과 같은 말이 있으면 왜 토로장군에게 말하지 않는가.

나. lioi bu yafan de gene-fi fung i ting ni fejergi
lioi bu garden DAT go-ANT,CVB fung i ting GEN under
jerguwen i dalba-de ili-fi aliya-ha
fence GEN side-DAT stand-ANT,CVB wait-PST,PTCP
bi-ci diyocan ji-mbi (三總 1:15a)
be-COND,CVBdiyocan come-NPST

여포가 동산에 가서 봉의정 아래 난간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초선이 온다.

다. tere diyocan waka o-ci we (三總 1:2a)
that diyocan be_not become-COND.CVB who
그것이 초선이 아니면 누구인가.

라. fung siyan baita akū o-ci taka
fung siyan matter there_is_not become-COND.C for_a_short_time
bedere (三總 1:7b)
withdraw.IMP

봉선은 일이 없으니 잠시 물리서라.

마. tsootsoo hendu-me gūwa gene-ci weile be urunakū
tsootsoo speak-SIM.CVB other go-COND.CVB matter ACC certainly
firge-mbu-mbi kai (三總 6:19a)
be_revealed-CAUS-NPST PTL

조조가 말하기를, “다른 이가 가면 일을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바. emu emhun boo-de dedu-ki seme gene-ci
one alone house-DAT lie_down-OPT COMP go-COND.CVB
boo i ejen okdo-me tuci-ke (三總 2:19b-20a)
house GEN owner meet-SIM.CVB come_out-PST.PTCP

한 외딴 집에서 자려고 가니 집주인이 맞으러 나왔다.

(14)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 동사인 ‘tuwa-’와 ‘donji-’에 붙은 ‘-ci’는 인지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은 ‘tuwa-’와 ‘donji-’에 붙은 ‘-ci’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15가, 다, 마)에서는 ‘bi-’나 ‘o-’, ‘gene-’에 붙은 ‘-ci’가 조건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5나, 라, 바)에서는 ‘bi-’나 ‘o-’, ‘gene-’에 붙은 ‘-ci’가 인지의 용법을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사들에 붙은 ‘-ci’는 조건, 인지, 선택 등의 용법

을 보일 수 있지만 대체로 조건의 용법으로 쓰인다. 결론적으로 ‘-ci’와 결합한 동사가 인지를 의미하면 ‘-ci’는 인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 동사들은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양상

가.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유형은 총 1,423개이고 빈도는 총 4,539개이다.

나. 어미 유형은 총 19개였으며, ‘-me, -fi, -HA, -rA, -mbi’ 등의 순으로 고빈도를 보였다.

다. 동사 유형은 총 589개였으며, ‘hendu-, o-, se-, gene-, bi’ 등의 순으로 고빈도를 보였다.

(17) 부동사 어미의 결합 양상

가. 총 19개의 어미 유형 중에서 부동사 어미는 8개이며, 부동사 어미 ‘-me, -fi, -ci’가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빈도는 전체의 약 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나. ‘-f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은 ‘o-, gai-, se-, gene-, baha-’ 등의 순으로 고빈도를 보였다.

- 이동성, 타동성이 높은 동사나 인지 동사들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 많은 만주어의 성취 동사/완성 동사는 ‘-fi’와의 결합이 높다.

다. ‘-me’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은 ‘hendu-, daha-, ali-, urgunie-, fonji-’ 등의 순으로 고빈도를 보였다. 특히, ‘hendu-’는 404개 용례가 발견될 정도로 고빈도를 보인다.

- 상태 동사와 결합하거나 이동성, 타동성이 낮은 동사, 감정 동사들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양상은 ‘-fi’와 상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 따라서 ‘-me’의 중심적인 기능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라. ‘-ci’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은 ‘tuwa-, o-, bi-, gene-, se-’ 등의 순으로 고빈도를 보였다.

- ‘-ci’와 결합한 동사가 인지 동사의 경우, ‘-ci’는 인지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 나머지의 경우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삼역총해』에 나타난 만주어 동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 분포를 살펴보았다. 특히 만주어 부동사 어미 ‘-ci, -fi, -me’의 빈도와 분포에 대해서 계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부동사 어미 ‘-ci, -fi, -me’와 결합하는 동사 어간의 양상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만주어 동사 어간과 이와 결합하는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특성과 경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fi’의 경우, 결합하는 동사 어간이 이동성, 타동성이 높거나 인지의 의미를 보인다. 많은 만주어의 성취 동사/완성 동사는 ‘-fi’와의 결합하는 빈도가 높다. 이것은 계기성과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me’는 상태 동사와 결합하거나 이동성, 타동성이 낮은 동사나 감정 동사들과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양상은 ‘-fi’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me’의 중심적 기능은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i’는 결합한 동사가 인지 동사일 때 인지의 기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ci’가 조건을 나타낼 때가 많다.

향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주어 부동사 어미 ‘-me,

-fi, -ci'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며, 『삼역총해』 이외의 자료를 통해서도 만주어 어미와 동사 어간의 결합 양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면 한다. 아울러 만주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량적 연구들이 수행된다면 만주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참고문헌

- 고동호(2015), 「한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과 과제」, 『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도정업(2018), 「만주어 격 표지 be의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정업·정한별(2017), 「만주어 내포문에 나타나는 seme의 문법적 지위」, 『동양학』 69.
- 루시언 브라운·연재훈(2010),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사 시제상 습득 양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진행형 “-고 있다”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1(1).
-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 『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용(1969), 『滿洲語文語研究(一)』, 대구: 螢雪出版社.
- 성백인(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 성백인(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 성백인(1958), 「만주어 동사활용어미 -ci, -cibe, -me에 대하여」, 『문리대학보』 7(1).
- 연규동(2014), 「청학서: 선조들이 만난 만주어」, 『새국어생활』 24(1).
-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 오민석(2013), 「18세기 국어의 시제체계에 관한 쟁점 연구: 『淸語老乞大新釋』에 나타난 한국어와 만주어의 대역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권(2013), 「만주어 접속문 연구」, 『민족문화연구』 58.
- 최운호(2015), 「한국어 ‘용언 어간 + 어미’ 결합의 양상: 용언별 결합 어미 분포의 집중화 경향에 대하여」, 『언어학』 71.
- 최운호(2017), 「한국어 ‘명사 + 격조사’ 결합의 양상」, 『언어학』 78.
- 趙志忠(2000), 「從『淸文啓蒙』看清代前期滿族人的雙語使用」, 『滿語研究』 1.
- 早田輝洋(2015), 「滿洲語の多様な形態素-nggeの文法的位置付け」, 『言語研究』 148.
- 津曲敏郎(2002), 『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校學術出版會.
- Do, J. (2019), “Influence of Analogy on Innovation of an Interrogative Particle in Man-

chu,” *Eoneohag* 85.

Gorelova, Liliya M. (2002), *Manchu Grammar*, Leiden-Boston-Köln: Brill.

Hopper, P. J. and S.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Li, G. R.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원고 접수일: 2022년 3월 31일, 심사 완료일: 2022년 4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5일

약어 목록²⁰

1	first person
2	second person
ABL	ablative
ACC	accusative
ANT	anterior
CAUS	causative
COMP	complementizer
CONC	concessive
COND	conditional
CVB	converb
DAT	dative
DUR	durative
EXCL	exclusive
GEN	genitive
IMP	imperative
N-	non- (e.g. NSG nonsingular, NPST nonpast)
NEG	negation, negative
NOM	nominative
OPT	optative
PL	plural

20 본고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기본적으로 Max Planck Institute에서 제시한 Leipzig Glossing Rules (<http://www.eva.mpg.de/lingua/resources/glossing-rules.php>)를 따른다. 이 목록에 없는 용어는 河內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Li(2000), Gorelova(2002) 등을 참고하였다. 만주어 이외의 언어들에 대한 주석 중 만주어에 없는 문법 표지는 해당 언어의 연구에서 제시한 용어를 그대로 따랐다.

PRE	prefatory
PRS	present
PRF	perfect
PST	past
PTCP	participle
PTL	particle
SG	singular
SIM	simultaneous
TERM	terminative

- 형태소 경계

= 첨사 경계

ABSTRACT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Manchu Verb Stems and Endings through Quantitative Methods

Do, Jeongup*

Jung, Su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verb stems and converb endings *-me*, *-fi*, and *-ci* that combine with them.

This study closely analyzes the aspect of the verb stem that is combined with the converb ending *-me*, *-fi*, and *-ci* shown in *Samyeok Chonghae* (a Manchu-Korean book) by using a quantitative method. Of the total 19 ending types, there are 8 converb endings. Among them, the frequency of converb endings *-me*, *-fi*, and *-ci* combined with the verb stem accounts for 98% of the total. Verb stems combined with *-fi* have high mobility, transitivity, or cognition. In particular, achievement verbs/accomplishment verbs in Manchu show a high association rate with *-fi*. This shows that *-fi* is strongly related to successiveness. In the case of *-me*, this ending has a strong tendency to combine with state verbs, verbs with lower mobility or lower transitivity, and emotion verbs. Therefore, it can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okpo National University

be seen that the central function of *-me* is to indicate simultaneousness. When the combined verb is a cognitive verb, *-ci* often indicates the meaning of cognition. In other cases, *-ci* indicates a condition.

Keywords Manchu, *Samyeok Chonghae*, Corpus, Verb Stem, Converb Ending, Distribution, Frequency

